

연등축제 준비에 '구슬땀' 한마음선원 청년회



“온 세상 환하게 밝힐 燈 기대는세요”

꽃샘추위도 떨쩍이 물러선 화창한 일요일. 남녘에서 올라오는 꽃소식에 뒤질 새라 길가의 개나리 가지에서 노란 웃음이 북북 터집니다. 이 봄, 꽃은 산과 길에서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안양시 석수동에 자리 잡은 한마음선원에서 수도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들이 가느라 분주한 일요일이지만 한마음선원 청년회(회장 이동준) 법우(法友)들은 4월 26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에서 선보일 장엄등을 만드느라 송글송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문수 보현 향등에 밝은 세상 염원 회원 100여명 주말 밤샘작업

3월 29일 일요일 오후에 찾아간 한마음선원은 벌써 잔치집입니다. 4층 법당에서는 어린이들의 제등행렬 율동 연습이 한창입니다. 3층에서는 신도회 보살님들이 연등을 만드느라 분주하고 2층 강당에서는 청년회 연회단 법우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서는 학생회 법우들이 풍물놀이 공연 연습을 하느라 신나게 사물을 두드리며 호흡을 맞춥니다. 한 층 더 내려가니 아, 무슨 공장 같습니다. 생 각보다 조용하고 모든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는 공간에서 화려한 전통등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전지를 오래 배정지를 준비하는 팀, 철사로 기본 구조를 만드는 팀, 철사 구조에 배정지를 바르는 팀, 전기관련 작업을 지원하는 팀, 조립팀, 채색팀 등으로 철저하게 분업화 된 작업공간은 일사불란합니다.

“올 해는 문수등과 보현등 그리고 향등을 기본으로 장엄등을 구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정진하는 원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도록 하라는 큰스님(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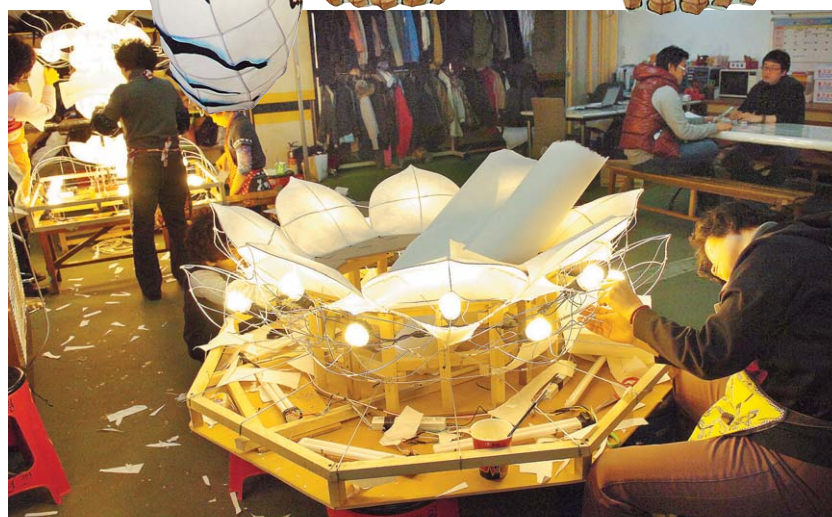
청년회를 담당하는 해암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문수 보현 향등의 개념도가 눈에 들어 옵니다. 문수등은 세상의 원리를 모두 담은 지혜의 완성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커다란 법사자(문수보살의 화현)의 등을 탄 동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보현등은 코끼리를 탄 동자들이 끊임없는 구도행을 발원하며 만중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향등은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묘사합니다. 가슴이 날직한 부처님의 품 가운데에는 오색구름에 휩싸인 자성불이 모셔져 있고 오른쪽에는 탑돌이 하는 스님들이 왼쪽에는 불자가정의 단란한 모습이 입체조형으로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뒤에는 커다란 산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앞에는 연꽃과 화과 기화요조들로 이루어진 극락연지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순수정작품으로 대형 장엄등을 만드는 한마음선원 청년회 회원들은 요즘 평일에도 학교와 직장을 마치고 달려오고, 주말이면 밤샘 작업도 합니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장엄등 제작과 연회단과 풍물패의 공연 연습이 'D-데이'가 가을수록 막바지 작업과 연습에 탄력을 받으며 일분일초도 아끼는 겁니다. 매주 100여명의 법우들이 선원으로 달려와 작업과 연습에 매달리니까, 그러한 정성과 노력이 수년간 전통등 경연대회와 제등행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석권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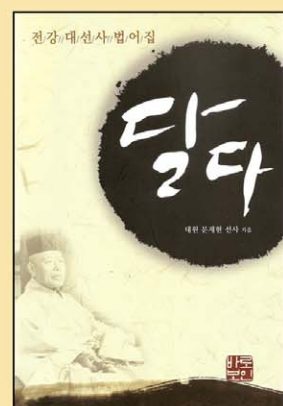
지하 주차장과 지상에 특별히 만들어진 작업실에서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는 한마음선원의 장엄등. 올 연등축제 제등행렬에서 또 한 번 불자와 시민들을 감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엄등의 크기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거의 반년 동안 온 마음 다해 축제를 준비하는 청년 법우들의 정성과 원력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등으로 불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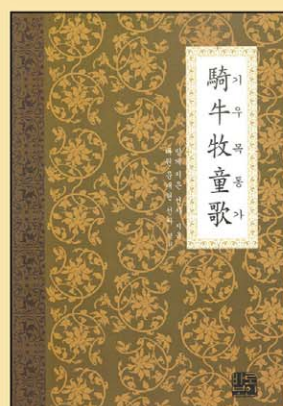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청년회 연회단의 연습 장면(위). 아래 왼쪽은 문수등 채색 모습이며 오른쪽은 골조 제작 모습.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강 대선사 범어집
달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값 15,000원



말게 지은 선사 기우목동가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게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론과 주옥같은 선승으로 다시 보았다.
값 10,000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체목록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 신심명 중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2권 / 환단고기 전5권 법용선사심명 / 선가귀감 / 법성계 / 주머니 속의 심경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곁고 복선에 첫눈 희다 / 기우목동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물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